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발달*

The Development of Toddl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Teachers

김진경¹ 강은영²

Jin Kyung Kim¹ Eun Young Kang²

ABSTRACT

In this study, authors investigated the attachment of toddlers to their mothers and teachers and overall development based on their gender difference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80 toddlers who are 25~36 months, their mothers, and teachers. We analyzed our data using t-test and two way ANOV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s categorized by the types of the attachment between the toddlers and the mothers and the gender difference demonstrated the developmental distinctions, respectively.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the two factors emerged in communication and basic living. Second, the groups categorized by the types of the attachment between the toddlers and the teachers and the gender difference demonstrated the developmental distinctions, respectively.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the two factors emerged in gross motor skills, fine motor skills, and cognition. Third,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multiple attachments to mothers and teachers, toddler development brought meaningful differences. We discussed the importances of the attachment of the toddlers and the role of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of our research and proposed future projects and suggestions.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1 제1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e-mail : keydss@naver.com)

■Key words Attachment, Multiple Attachment, Toddler Development

I. 서론

출생에서 생후 36개월까지를 의미하는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인간은 출생 후 36개월 동안 발달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와 토대가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기에는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이 시기의 발달 양상은 이후 발달에 결정적이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아기에 이뤄지는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주양육자와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애착 발달이며, 이 시기는 애착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다. 애착이란 영아기에 주양육자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영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관계로 영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Bowlby, 1958).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은 양육자와의 관계에 의해 안정된, 혹은 불안정으로 형성된 애착의 유형에 따라 이후 영아의 인지적·정서적인 정신적 표상을 결정하는 내적실행모델이 만들어진다. 영아는 과거 애착대상과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정서적인 정신적 표상에 기초를 두고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데, 내적실행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은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김숙령, 2006).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영유아의 인지 및 사회 정서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인과의 애착관계를 강조해왔다. 영아발달은 어머니의 애착행동과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긍정적 발달양상을 보이며(이수진, 2011; Main, 1983), 어머니와 안정애착이 형성되면 인지 및 언어발달이 높게 나타났고(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애착의 하위변인 중 안아주기, 눈 맞추기 등 신체적 의사소통인 접촉추구가 영아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진, 2013). 지금까지 애착과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아의 언어발달(김영실, 신애선, 2013; 정미라 등, 2011; 조수진, 2013)이나 정서지능(박지현, 2008; Main, 1983) 등과 같이 발달의 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영아는 여러 발달 영역들이 뚜렷하게 분화되지 않고 대근육, 소근육, 사회정서, 의사소통, 인지 등 발달의 제반 영역이 통합적으로 발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김한나, 서소정, 2012; 장혜성, 서소정, 하지영, 2008), 애착에 따른 전반적인 발달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정, 2014). 이 연구에서 영아발달은 영아기의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영역을 하위영역으로 포함한 각 영역별 발달수준 및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현대사회의 구조 변화와 함께,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 등의 이유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영아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구축되고 있다. 핵가족 구조에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추며 국가가 지원하는 영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영아보육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은 점차 하향화되었으며, 2012년 무상보육정책 이후 1,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영아 수는 2009년 466,869명에서 2014년 752,010명으로 약 61%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영아들의 애착과 발달 양상은 어떠한지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어머니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양육 받는 경우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애착 이론에서는 내적실행모델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이것이 이후 중요한 타인들 아버지, 조부모, 형제, 교사 등과의 관계 형성에도 위계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retherton, 1985).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여러 연구자들은 의문을 가졌고, 영아는 집이나 유치원 같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 즉, 영아는 어머니 이외의 조부모, 아버지, 교사와도 독립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Schaffer와 Emerson(1964)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애착만이 최선이 아니며 교사와의 애착도 영아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하며, 발달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양육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애착 연구가 주로 이뤄졌다. 복합애착, 다인애착에 대한 개념 등장 등은 애착형성이 한 명의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만 이뤄지기 보다는, 상당시간 상호작용하는 조부모나 아버지, 대리모, 교사 등의 영향력도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된 개념이다. 따라서 영아가 어린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아와 교사와의 애착을 배제하여 영아기의 애착형성을 조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근에 취업모가 증가함에 따라 영아는 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하루의 일정시간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긴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영아에게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며 대안애착의 대상이 되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종일보육을 받는 영아들에게 교사와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회·심리적 환경이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경우, 깨어있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대부분을 함께 생활하는 의미 있는 존재 중 하나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은 영아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복합애착을 함께 조망해보는 것은 고무적이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 교사와의 복합애착에 따른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 영아기 애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복합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교사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어머니와 교사 모두에게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친사회성, 사회 정서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고(배효심, 이희영, 2007; 서연주, 2006; 손혜숙, 1998), 자아지각, 내재적·외현적 행동에도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김진경, 2010; 신지연, 2004). 또한, 어머니나 교사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애착정도가 높으면, 어머니와 교사 모두에 대한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의 유아보다 전반적인 사회생활 적응행동 문제는 적게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오재연, 이지현, 2005; 이상은, 199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애착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애착에 따른 전반적인 영아발달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김한나, 서소정, 2012; 이수진, 2011; 정미라 등, 2014; Kivijarvi et al., 2001) 어머니와의 애착만 초점을 두어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었다. 발달의 연속상에서 볼 때 생애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이후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를 거쳐 지속되므로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백지혜, 2009; Mooney, 2010). 이에 어머니 뿐 아니라, 교사와의 복합애착이 영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모색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합애착이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부모와 교사에게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영아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성에 따라 애착과 발달 양상이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김지현, 전예화, 2008; 홍계옥, 2006; 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 또한 부모와의 애착 등 가족관계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애착과 가족관계에 더 취약하였고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는 양육자가 이성적이고 일관된 양육을 하는 것이 자기이해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여아는 이성적인 양육보다는 애정과 신뢰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양육이 긍정적 발달에 더 중요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비밀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주연, 조연희, 2015). 또한, LaFreniere와 Sroufe(1985)의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경우 또래로부터 평가되는 지위가 낮았으나, Turner(1991)의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여아의 경우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오히려 긍정적 표현을 더 많이 하고 더 유순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성에 따른 연구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문화마다 성에 따른 양육환경이나 사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Cohn, 1991; Turner, 1991).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애착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영아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복합애착에서는 유형별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성에 따른 차이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상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아의 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발달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영아의 성과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발달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 및 교사와의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종일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25~36개월 영아 80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 K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검사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 100통을 배포하였다. 그 중 검사의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는 91명이었으나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이모, 베이비시터 등인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종일반 영아를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 담임교사에게서 6개월 이상 보육 받은 영아로 월령은 25~36개월로 제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영아의 재원기간이 최소 3개월은 되어야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다(Cohn, 1990)라는 것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영아와 어머니,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아와 어머니 및 교사의 일반적 특성 (N = 80)

대상	변인	집단	빈도(명)	백분율(%)
영아	성	남	44	55.0
		여	36	45.0
	월령	25~30개월	21	26.3
		31~36개월	59	73.7
아	입소 월령	12개월 이하	19	23.8
		13~18개월 이하	26	32.5
		19~24개월 이하	28	35.0
		25개월 이상	7	8.7
		30세 이하	2	2.5
어머	연령	31~33세 이하	17	21.3
		34~36세 이하	27	33.7
		37~39세 이하	24	30.0
		40세 이상	10	12.5
니	학력	고졸	8	10.0
		2,3년제 대학	21	26.3
		4년제 대학 이상	51	63.7
	직업 유무	유	47	58.8
		무	33	41.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	12.5
		민간 어린이집	2	12.5
		가정 어린이집	12	75.0
교	연령	20대	5	31.2
		30대	9	56.3
		40대	2	12.5
사	학력	보육교사 양성기관	6	37.5
		2,3년제 대학	8	50.1
		4년제 대학 이상	2	12.4
	경력	3년 이하	6	37.6
		3년 초과~6년 이하	3	18.7
		6년 초과~9년 이하	4	25.0
		9년 1개월 이상	3	18.7

2. 연구도구

1) 애착검사

영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ers와 Deane(1985)이 개발하고 이후 개정된 개정판을 이영, 박경자 그리고 나유미(1997)가 번안한 ‘애착 Q-set’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용 애착 Q-set

는 영유아의 행동을 중심으로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용 애착 Q-set는 Nimetz(1992)가 제시한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Nimetz(1992)는 90문항 중 어린이집 상황에서 교사의 애착을 측정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10, 26, 33, 47, 49, 52, 61, 68, 73번 총 9문항이다. ‘낮선 사람이 방문하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달려간다.’ ‘기분 나쁠 때 들고 다니거나 잘 때에 침대에 가지고 가거나, 안고 다니는 특별한 장난감이나 담요가 있다.’ ‘저녁에 깨우려고 하면 자주 울거나 싫다고 저항한다.’ 등 주로 가정에서 나타내는 행동들이다. 애착 Q-set는 애착탐색균형, 양육자가 달래주는 데에 대한 반응,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 대인지각, 대물조작, 의존성, 인내력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Vaughn, Dean, & Waters, 1985).

어머니 애착 검사방법은 90장의 카드를 읽고 영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상(가장 비슷한 것), 중(중간인 것), 하(가장 다른 것)로 3묶음으로 나누게 한다. 또한 각 묶음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9개의 수준으로 분류한다. 영아의 행동과 가장 비슷한 행동은 9점, 가장 상이라고 분류된 카드에는 1점을 부여되며, 각 점수마다 10장의 카드가 놓이도록 분류한다. 교사 애착 검사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 교사는 81장의 카드를 읽고 영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상(가장 비슷한 것), 중(중간인 것), 하(가장 다른 것)로 3묶음으로 나누게 한다. 또한 각 묶음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9개의 수준으로 분류한다. 영아의 행동과 가장 비슷한 행동은 9점, 가장 상이라고 분류된 카드에는 1점을 부여되며, 각 점수마다 9장의 카드가 놓이도록 분류한다. 애착 Q-set를 분류하는 시간은 영아 1명당 약 25~40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Q-set는 여러 문화에서 애착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영아의 행동은 각 문화권의 양육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애착 Q-set를 통해 애착안정성을 측정할 때, 애착안정성의 준거점수는 각 문화권에 맞는 준거점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영 등(1997)의 한국판 준거점수를 이용하여 준거점수와 연구대상 영아의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애착안정성을 산출하였다. 이 때 개인 영아가 받은 점수와 준거점수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높다고 본다(Waters & Deane, 1985). 연구대상 전체 영아의 월령이 25~36개월이었으므로 36개월용 애착안정성 준거점수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된 애착안정성 점수에 대해서, 어머니 또는 교사와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각각 높은 순서대로 하여 상위 2/3에 속하는 영아를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으로, 하위 1/3에 속하는 영아를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Ainsworth, Blehar, Waters 그리고 Wall(1978)이 상황연구에서 미국 유아들 65%가 안정애착, 35%가 불안정애착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홍계옥과 정옥분(1995)의 연구에서는 62%가 안정애착, 38%가 불안정애착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복합애착 유형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어머니, 교사와 각각 형성된 애착 유형에 따라 영아가 어머니와 교사 모두 안정 애착된 집단은 안정-안정 유형으로, 어머니와 안정 애착이나 교사와는 불안정 애착인 경우, 안정-불안정 유형으로 분류하며,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이나 교사와는 안정 애착된 집단은 불안정-안정 유형으로, 어머니와 교사 모두 불안정 애착인 경우는 불안정-불안정 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2〉 검사도구 목록 및 구성

변인	검 사 도 구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검사방법	검사자
어머니 애착 안정성	- Waters와 Deane(1985) 개발 - 이영, 박경자와 나유미(1997) 번안	애착탐색 균형 반응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 대인지각 대물조각 의존성 인내력	90	.78	카드분류	어머니
		애착탐색 균형 반응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 대인지각 대물조각 의존성 인내력				
교사 애착 안정성	- Waters와 Deane(1985) 개발 - 이영, 박경자와 나유미(1997) 번안 - Nimetz(1992) 교사용으로 수정한 문항 참고	애착탐색 균형 반응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 대인지각 대물조각 의존성 인내력	81	.81	카드분류	교사
		애착탐색 균형 반응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 대인지각 대물조각 의존성 인내력				

2) 영아발달검사

출생에서 생후 36개월까지를 의미하는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 영아발달은 영아기의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영역을 하위영역으로 포함한 각 영역별 발달수준 및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영아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혜성, 서소정 그리고 하지영(2008)이 국내 영아를 대상으로 타당화를 구축한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를 사용하였다.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는 0~36개월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진단하고, 장애위험군에 처한 영아를 조기선별 및 중재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선별진단도구로 교사 또는 부모가 작성할 수 있다. 월령 단계별로 0~3개월, 7~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의 총 8개의 검사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검사지는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의 6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근육운동기술은 고개들기, 앉기, 기기, 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점프하기, 균형잡기 등으로 월령에 따라 25~30개월은 8문항, 31~36개월은 6문항으로 구성되며, 소근육운동기술은 눈동자의 움직임, 손과 손가락의 사용, 눈과 손의 협응 등으로 25~30개월은 6문항, 31~36개월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발성, 웅얼이, 듣기, 이해하기, 말하기, 의문어, 부정어, 시제의 사용 등으로 25~30개월은 11문항, 31~36개월은 16문항으로 구성되며, 사회정서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아개념, 다양한 감정 표현 등으로 25~30개월은 6문항, 31~36개월은 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인지는 대상영속성, 인과관계, 모방, 상징, 문제해결, 수개념, 분류 등은 25~30개월은 9문항, 31~36개월은 9문항으로 구성되며, 기본생활은 음식먹기, 배변훈련, 손씻기, 옷 벗고 입기 등으로 25~30개월은 6문항, 31~36개월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개월 이상의 영아는 종일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육한 담임교사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연령 25~30개월, 31~36개월의 검사지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성공하면 ‘예’, 부분적으로 성공하면 ‘가끔’, 실패하면 ‘아니요’로 수행여부를 기록하였다. 각 부분의 수행여부에 따라 각각 10점, 5점, 0점으로 채점되어 문항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가 원점수가 되며, 전체 총점은 6개 영역을 합산한 점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를 백분위점수로 환산하여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척도의 하위 영역구성과 측정내용, 월령별 문항 수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의 영역구성과 측정내용

영역구성	측 정 내 용	25~30개월	31~36개월
대근육 운동기술	고개들기, 앉기, 기기, 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점프하기, 균형잡기 등	8	6
소근육 운동기술	눈동자의 움직임, 손과 손가락의 사용, 눈과 손의 협응 등	6	7
의사소통	발성, 웅얼이, 듣기, 이해하기, 말하기, 의문어, 부정어, 시제의 사용 등	11	16
사회정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아개념, 다양한 감정 표현 등	6	7
인 지	대상영속성, 인과관계, 모방, 상징, 문제해결, 수개념, 분류 등	9	9
기본생활	음식먹기, 배변훈련, 손씻기, 옷 벗고 입기 등	6	6
전 체		46	51

3. 연구절차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1곳에서 2015년 1월 26~28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애착 Q-set 분류를 영아의 어머니에게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영아 1명당 약 25~40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는 애착 Q-set 분류와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를 의뢰하였더니, 영아 1명당 총 소요되는 시간은 40~50분가량 소요되었다. 조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본조사에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연구자가 한국판 애착 Q-set 문항 및 검사방법이 설명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미리 전달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1주일 정도 문항과 관련된 자녀의 행동특성을 미리 관찰한 후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안내문은 연구자와 연구자에게 설명을 들은 담임교사나 원장이

직접 안내하고 배부하였고,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로 애착의 중요성과 연구목적을 알려 드림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애착 Q-set 분류는 사전에 어머니와 일정약속을 정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마련된 조용한 공간에서 어머니와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애착 Q-set을 분류하기 전, 연구도구에 대한 소개와 분류방법에 대한 안내 후 1번부터 5번 카드문항까지 어머니와 함께 읽고 분류해보았다. 어머니가 카드 분류방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후에는 나머지 카드분류를 실시하였는데, 어머니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었다. 이런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응대하도록 노력하였다. 교사는 4~6명의 영아를 본 연구자의 감독 하에서 애착 Q-set 분류와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를 실시하였다. 교사에게도 1주일 전에 애착 Q-set와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 도구를 미리 전달해주고 맡고 있는 영아의 행동특성을 관찰해두고 영아발달에 대해 미리 측정해보도록 부탁드렸다. 교사는 주로 영아의 낮잠시간을 이용해서 애착 Q-set 분류와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를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하였다. 먼저 영아들의 애착안정성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영아의 애착점수와 국내 준거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 영아의 성과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을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ANOVA)을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 복합애착에 따른 발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affé 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영아의 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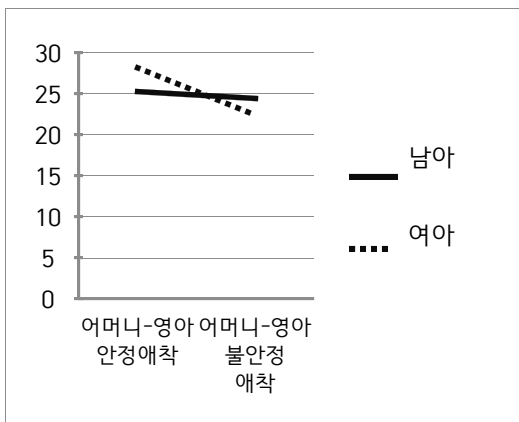
영아의 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고 영아의 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결과는 <표 5>와 같다.

소근육운동기술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F = 7.15, p < .05$). 즉, 소근육운동기술은 남아보다 여아가 유의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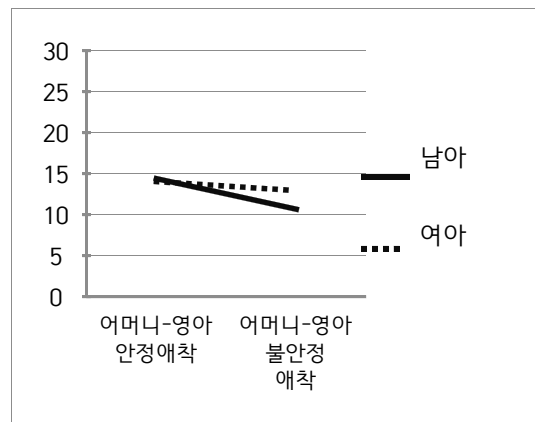
의사소통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F = 2.57, p < .05$), 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영아의 의사소통 영역은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집단이 불안정애착 집단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F = 5.78, p < .05$). 의사소통 영역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표 4〉 영아의 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80)

영아발달	성	안정		불안정	
		M	SD	M	SD
대근육운동기술	남아	15.40	4.37	14.33	3.23
	여아	14.32	4.65	12.71	3.84
	전체	14.90	4.49	13.63	3.53
소근육운동기술	남아	12.83	3.80	11.38	4.26
	여아	13.48	2.25	12.96	2.57
	전체	13.13	3.17	12.91	4.00
의사소통	남아	25.26	8.93	24.42	11.76
	여아	28.15	8.68	22.40	12.43
	전체	26.60	8.85	25.27	12.09
사회정서	남아	13.87	3.45	12.06	3.76
	여아	13.11	4.12	11.23	1.79
	전체	13.52	3.75	11.71	3.06
인지	남아	17.67	3.90	16.42	4.03
	여아	17.18	3.55	16.30	4.32
	전체	17.44	3.71	16.37	4.08
기본생활	남아	14.41	4.72	10.68	3.57
	여아	14.05	4.31	12.95	2.40
	전체	14.25	4.49	10.80	3.07



〔그림 1〕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그림 2〕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기본생활

사회정서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F = 4.82, p < .05$), 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회정서는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집단이 불안정애착

<표 5> 영아의 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N = 80)

영아발달	변량원	SS	df	MS	F
대근육운동기술	애착유형(A)	32.09	1	32.09	1.82
	성(B)	32.59	1	32.59	1.85
	A x B	1.26	1	1.26	.07
	오차	1334.64	76	17.56	
소근육운동기술	애착유형(A)	23.00	1	23.00	1.02
	성(B)	80.43	1	80.43	7.15*
	A x B	38.55	1	38.55	3.42
	오차	854.68	76	11.24	
의사소통	애착유형(A)	57.98	1	57.98	2.57*
	성(B)	20.34	1	20.34	.20
	A x B	280.94	1	280.94	5.78*
	오차	7664.93	76	100.85	
사회정서	애착유형(A)	60.98	1	60.98	4.82*
	성(B)	11.37	1	11.37	.90
	A x B	.02	1	.02	.32
	오차	960.80	76	12.64	
인지	애착유형(A)	20.40	1	20.40	1.34
	성(B)	1.66	1	1.66	.11
	A x B	.57	1	.57	.03
	오차	1151.91	76	15.15	
기본생활	애착유형(A)	209.39	1	209.39	12.37**
	성(B)	.03	1	.03	.00
	A x B	1.81	1	1.81	7.10**
	오차	1286.13	76	16.92	

* $p < .05$, ** $p < .01$.

집단보다 발달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기본생활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 하였으나($F = 12.37, p < .01$)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F = 7.10, p < .01$). 즉, 기본생활은 안정애착 집단이 불안정애착 집단보다 기본생활 점수가 높았고, 여아에 비해 남아가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2. 영아의 성과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영아의 성과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고, 영아의 성과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근육운동기술에서 애착유형의 주효과($F = 4.53, p < .05$)는 유의미하였고, 성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F = 3.13, p < .05$)은 유의미하였다. 즉, 대근육운동기술 영역은 교사와의 안정애착 집단이 불안정애착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소근육운동기술에서 애착유형의 주효과($F = 6.22, p < .05$)는 유의미하였으나 성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F = 5.33, p < .05$)은 유의미하였다. 즉, 소근육운동기술은 교사와의 안정애착 집단이 불안정애착 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여아에 비해 남아가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에서 애착유형, 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지에서 애착유형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성($F = 6.72, p < .05$),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F = 3.61, p < .05$)은 유의미하였다. 즉, 인지 영역은 여아보다 남아가 유의하게 높았고,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본생활에서 애착유형의 주효과($F = 6.60, p < .01$)는 유의미하였으나, 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생활 영역은 교사와의 안정애착 집단이 불안정애착 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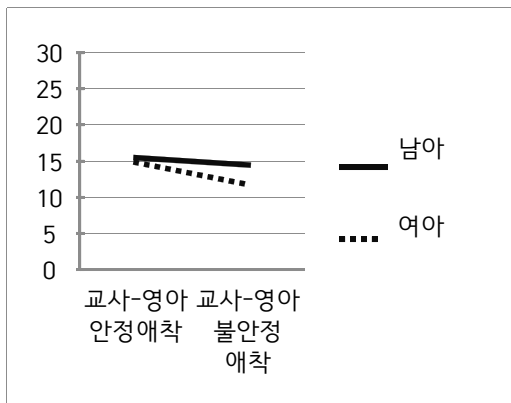
〈표 6〉 영아의 성과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80)

영아발달	성	안정		불안정	
		M	SD	M	SD
대근육운동기술	남아	15.47	3.66	14.46	4.38
	여아	14.80	3.52	11.75	5.40
	전체	15.13	3.57	13.44	4.89
소근육운동기술	남아	13.74	3.40	10.58	4.03
	여아	14.16	2.17	13.60	2.96
	전체	13.95	2.83	11.71	3.91
의사소통	남아	27.82	7.91	25.52	10.47
	여아	26.53	10.05	25.64	11.15
	전체	28.18	9.10	23.06	10.74
사회정서	남아	13.44	3.48	12.94	3.87
	여아	12.94	2.82	11.57	4.81
	전체	13.19	3.15	12.43	4.23
인지	남아	17.92	3.34	16.36	4.52
	여아	17.87	2.90	14.93	4.65
	전체	17.90	3.09	15.82	4.55
기본생활	남아	13.57	4.56	12.44	4.82
	여아	13.17	3.96	12.71	4.32
	전체	13.37	4.23	12.54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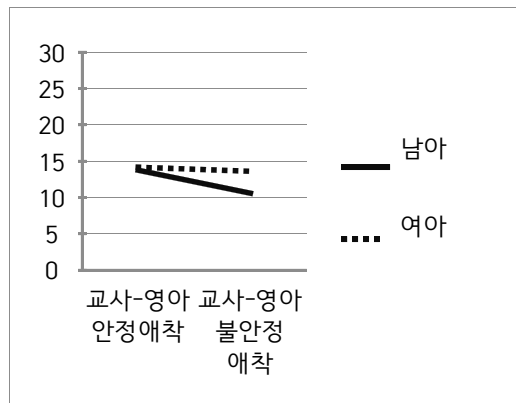
〈표 7〉 영아의 성과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N = 80)

영아발달	변량원	SS	df	MS	F
대근육운동기술	애착유형(A)	76.42	1	76.42	4.53*
	성(B)	52.75	1	52.75	1.13
	A x B	19.19	1	19.19	3.13*
	오차	1281.07	76	16.85	
소근육운동기술	애착유형(A)	64.01	1	64.01	6.22*
	성(B)	54.90	1	54.90	3.05
	A x B	31.38	1	31.38	5.33*
	오차	781.89	76	10.28	
의사소통	애착유형(A)	390.71	1	390.71	4.11
	성(B)	3.21	1	3.21	2.03
	A x B	253.36	1	253.36	2.66
	오차	7218.88	76	94.98	
사회정서	애착유형(A)	16.16	1	16.16	1.22
	성(B)	16.14	1	16.14	1.22
	A x B	3.49	1	3.49	.26
	오차	1004.63	76	13.21	
인지	애착유형(A)	93.53	1	93.53	1.59
	성(B)	10.24	1	10.24	6.72*
	A x B	8.70	1	8.70	3.61*
	오차	1078.31	76	14.18	
기본생활	애착유형(A)	11.77	1	11.77	6.60**
	성(B)	.06	1	.06	.57
	A x B	2.08	1	2.08	2.10
	오차	1489.40	76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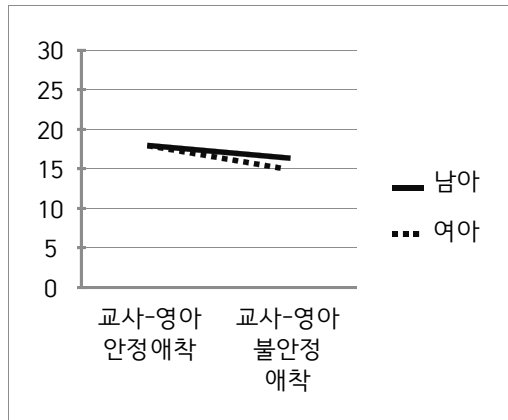
* $p < .05.$, ** $p < .01.$



〔그림 3〕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대근육운동기술



〔그림 4〕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소근육운동기술



(그림 5) 영아의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인지

3. 어머니와 교사와의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어머니와 교사와의 복합애착에 따른 발달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근육운동기술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M = 19.01$),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M = 18.67$),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M = 15.10$),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M = 13.68$)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4.27, p < .01$).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대근육운동기술은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 집단이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 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은 집단이었다. 어머니, 교사 모두에게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대근육운동기술 발달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았다.

소근육운동기술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M = 18.08$),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M = 17.87$),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M = 14.54$),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M = 12.42$)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3.70, p < .05$). 사후검증 결과, 소근육운동기술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 집단이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모두 소근육운동기술 발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M = 31.36$),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M = 29.26$),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M = 23.75$),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M = 21.77$)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8.07, p < .001$). 사후검증 결과, 의사소통은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 집단이 어머니안정-교사 불안정,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 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여부와 상관없이, 교사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았다.

인지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M = 18.72$),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M = 17.95$),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M = 15.34$),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M = 14.84$) 순서로 나타났고, 유의

〈표 8〉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발달 (N = 80)

항목	집단 분류	n	M	SD	F	p	scheffé
대근육 운동기술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a)	39	19.01	5.55	4.27**	.00	a > b, c, d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b)	13	18.67	4.55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c)	13	15.10	4.74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d)	15	13.68	3.86			
	합계	80	17.32	5.90			
소근육 운동기술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a)	39	18.08	6.984	3.70*	.01	a, b > c, d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b)	13	17.87	6.220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c)	13	14.54	4.963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d)	15	12.42	4.35			
	합계	80	16.41	6.46			
의사소통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a)	39	31.36	4.65	8.07***	.00	a, c > b, d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b)	13	23.75	9.55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c)	13	29.26	8.87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d)	15	21.77	9.03			
	합계	80	27.98	8.17			
사회정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a)	39	17.36	7.11	1.79	.15	
	어머니안정-교사 불안정(b)	13	16.10	5.53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c)	13	19.36	7.74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d)	15	13.93	3.77			
	합계	80	16.84	6.59			
인 지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a)	39	18.72	2.69	4.90*	.00	a, c > b, d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b)	13	15.34	5.35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c)	13	17.95	3.20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d)	15	14.84	5.44			
	합계	80	17.32	4.18			
기본생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a)	39	15.99	6.82	1.62	.19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b)	13	13.92	6.61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c)	13	18.13	8.06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d)	15	13.17	4.22			
	합계	80	15.47	6.69			

*p < .05, **p < .01, ***p < .001.

한 차이가 있었다($F = 4.90, p < .05$). 사후검증 결과, 인지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안정-교사 안정 집단과 어머니 불안정-교사 안정 집단이 어머니 안정-교사 불안정 집단과 어머니 불안정-교사 불안정 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여부와 상관없이, 교사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모두 인지발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사회정서 영역과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성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의사소통, 사회정서, 기본생활 영역에서 불안정애착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소근육운동기술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한나, 서소정, 2012; 허정숙, 2008; Mooney, 2010),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은 영아의 의사소통과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며(이수진, 2011),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지연, 2004) 등과 일치한다. 또한, 애착유형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의사소통과 기본생활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의사소통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영아기 시기의 성은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신현정, 2006).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치며 큰 차이를 유도하였다. 남아에 비해 여아는 타인 의존적이며 타인의 정서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의사소통 발달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기본생활 발달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였을 때 자기관리나 기본생활 습관 형성이 더욱 잘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율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주연, 조연희, 2015)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아의 성과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을 살펴본 결과, 교사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기본생활 발달에 있어서 불안정애착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인지 발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사와의 애착유형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근육운동기술과 인지 영역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교사와의 안정애착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치며 큰 차이를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남아의 경우는 교사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근육 중심의 활동적인 성향이 있는데 반해, 여아는 교사와의 안정된 관계를 통한 격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근육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접하고 시도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소근육운동기술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소근육 발

달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교사와의 관계에 더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 남아의 경우, 교사의 안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소근육 활동 기회를 확장시키는 시도를 하며 발달을 도모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결과는 교사와의 애착이 언어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정미라 등, 2011), 어린이집 초기 사회 정서적 적응에 교사와의 관계와 영아의 성이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황선영, 2013) 등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안정 정도와 성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정서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권인옥, 2008)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반 교사는 영아와 형성된 애착유형이 영아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므로, 교사는 영아들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셋째, 어머니와 교사와의 복합애착에 따른 발달을 살펴본 결과, 대근육운동기술, 소근육운동기술, 의사소통, 인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대근육운동기술 영역은 어머니, 교사와 모두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안정애착은 안전기지로 작용함으로써, 영아는 신체를 통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안정애착이 유아의 대근육운동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수진(201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소근육운동기술 영역은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에 상관없이 소근육운동기술 발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안정애착으로 발달지원에 관한 양육효능감을 많이 가질수록 영아의 소근육운동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경하(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의사소통과 인지 영역은 교사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여부와 상관없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집단의 경우에도, 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머니만큼 교사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영아는 교사와도 독립적으로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발달영역에서는 오히려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들(김인숙, 2010; 윤혜영, 김상희, 2010)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상은(1999)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교사 모두 안정애착한 집단이 불안정한 집단보다 사회적 능력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 유능한 발달을 보였고, 어머니와 교사 한쪽에게만 애착 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우세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지만 교사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유아는 어느 누구와도 안정된 애착을 갖지 못한 유아보다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연구들(Howes, Rodning, Galluzzo & Myers, 1988; Scarr, 1992)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영아와 교사 간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격리나 불안정애착에서 오는 상실감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안정애착 또는 교사의 안정애착 어느 한쪽만의 안정애착만으로도 영아발달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반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교사에게 모두 안정 애착한 영아들이 사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신지연, 2004)과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아버지, 어머니, 교사 세 양육자와의 복합애착 관계가 어머니와 아버지 두 양육자와의 복합애착 관계 또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하나만을 고려하였을 때보다 이후 유아의 발달능력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 되었음을 밝힌 연구결과(Sagi et

al., 1985)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영아인 경우에, 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한다면,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보완할 수 있음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따라서 애착의 결정적인 시기인 영아기를 담당하는 영아반 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검토해야할 시점임을 제안한다. 오늘날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정에서 담당했던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공 기관으로 점차 이전되며 기관에 처음으로 등원하는 아동의 연령은 점차 하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애착발달의 중요성을 근거로 영아기를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진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의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서 및 육체노동의 막중함, 낮은 보수 및 복지 여건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따라서 영아반 교사의 소명의식이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영아반 교사의 위상을 높이며 영아반 교사의 처우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아반 교사는 영아의 발달과 정서, 성장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영아발달을 촉진하고 미래를 준비시킨다는 의미에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 교사와의 애착 및 영아의 성에 따른 전반적인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대안 애착대상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일정 월령의 영아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복합애착에 따른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서 유형별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추후에 교사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한 복합애착에 대한 연구가 영아의 월령과 성에 따라 좀 더 섬세하게 구분하여 자세히 조망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서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애착유형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아 대상의 복합애착과 발달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 및 어머니와의 복합애착에 따른 영아발달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어머니와 교사 각각을 단편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교사용 애착 Q-set 준거점수용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선행연구에서처럼 부모용을 교사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이 또한 교사와의 애착유형을 타당하게 측정하지 않은 제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교사용 애착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조부모나 아버지와의 애착이 독립적으로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각도 모색도 의미 있을 것으로 제언해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권인옥 (2008). 영아의 보육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 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2006). 교사-영아간 애착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영유아보육학회**, 45, 1-26.
- 김영실, 신애선 (2013).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영아의 이해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157-176.
- 김인숙 (2010).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31(2), 1-17.
- 김지현, 전예화 (2008). 유아의 애착표상과 또래 인기도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육논집**, 19(2), 25-43.
- 김진경 (2010).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 **아동학회지**, 31(5), 1-15.
- 김한나, 서소정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발달간의 관계연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07-329.
- 박지현 (2008).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영아의 정서지능 관계 연구-만2세 영아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효심, 이희영 (2007).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5(2), 127-143.
- 백지혜 (2009). 영아의 보육 안정성, 시작시기, 양과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95-212.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0820&page=1에서 2016년도 5월 1일 인출
- 서연주 (2006).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복합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숙 (1998). 어머니와 교사의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 (2004).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애착과 사회 정서적 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현정 (2006).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관한 고찰. **아시아아동복지연구**, 4(2), 79-95.
- 오재연, 이지현 (2005). 3세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유형과 유치원 생활적응행동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3), 385-412.
- 윤해영, 김상희 (2010). 보육교사의 배경변인 및 전문성 인식에 따른 영아의 애착안정성 연구. **Montessori 교육연구**, 15, 83-103.
- 이경하 (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 (1999).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1).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준거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주연, 조연희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2), 53-70.
- 장혜성, 서소정, 하지영 (2008).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전문가지침서**. 서울: 학지사.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정 (2014). 12개월 영아의 기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4(3), 333-354.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민감성이 12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6), 335-352.
- 조수진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과 영아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숙 (2008). 영아의 애착안정성 및 기질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 (2006). 교사, 유아의 기질 및 교사-유아간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1(2), 25-41.
- 홍계옥, 정옥분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99-112.
- 황선영 (2013). 생태학적 변인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53-180.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5), 350-373.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35.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1), 152-162.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52-266.
- DeMulder, E. K., Denham, S., Schmidt, M.,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74-282.

- Goossens, F. A., & Van Ijzendoorn, M. H. (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 to professional caregivers: Relation to infant-parent attachment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3), 832-837.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4), 859-866.
- Howes, C., Rodning, C., Galluzzo, D. C., & Myers, L. (1988). Attachment and child care: Relationships with mother and caregiv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4), 403-416.
- Kivijarvi, M., Voeten, J., Raiha, H., Kaljonen, A., Tamminen, T., & Piha, J. (2001). Maternal sensitivity behavior and infant behavior in early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6), 627-640.
- Sagi, A., Lamb, M., Lewkowicz, K., Shoham, R., Dvir, R., & Estes, D. (1985). Security of infant-mother, father, and multiple attachments among kibbutz reared Israeli childre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257-275.
- Scarr, S. (1992). Mother care/Other care,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현은자 옮김). 서울: 양서원 (원판 1984).
- Schaffer, H. R., & Emerson, P. 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3), 1-77.
- Turner, P. J. (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6), 1475-1488.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56-69.
- Main, M. (1983). Exploration, play, and cognitive functioning related to infant-mother attach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2-3), 167-174.
- Mooney, C. G. (2010). *Theories of attachment*. MN, St. Paul: Releaf Press.
- Nimetz, S. (1992). Continuity from mother-child to teacher-child relationships in four-year-olds and the prediction of kindergarten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Vaughn, B. E., Deane, K. E., & Waters, E. (1985). The impact of out-of-home care on child-mother attachment quality: Another look at some enduring questions.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110-135.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 (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5), 2493-2511.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

논문투고: 16.05.20
수정원고접수: 16.07.25
최종게재결정: 16.07.30